베트남

Vietnam

5. 외국계 편의점 시장점유율은 70%에 달해

하노이지사

5-1 주요내용

▶ 베트남 상공부가 발표한 2016년 소매업계 보고에 따르면, 외국기업의 편의점 시장점유율은 70%에 달한다.

▶ 그 밖에 유통채널의 외국기업 점유율은 온라인 판매·홈쇼핑 등이 50%, 상업시설 슈퍼마켓이 17%, 슈퍼마켓이 15%에 달해 수입품 유통이 확대되고, 국산품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▶ 상업시설 슈퍼마켓 및 소형 마트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이지만, 한국계 롯데와 일본계 이온 등이 베트남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의 시장점유율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▶ 2016년 태국의 소매업체 중앙그룹(Central Group)이 프랑스의 카지노 그룹(Casino Group)의 마켓 “Big C”를 11억 4,000만 USD에 인수, 태국의 대형 재벌 TCC그룹(TCC Group)이 독일계 도매유통업체 메트로 캐시&캐리(Metro C&C)를 7억 1,100만 USD에 인수하게 됨으로써 태국계 소매업자가 베트남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품질 좋은 저가 태국산 상품의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.

▶ 또한 베트남 통계총국(GSO)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연간 소매 매출액은 전년대비 10.2% 늘어난 3,527조 3,661억 VND으로 2015년 성장율 9.5%보다 증가했다.

*출처 : viethantimes

시사점

베트남의 현대식 소매유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업계의 마케팅 타킷이 점차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. 베트남 소비자 또한 원스톱 쇼핑을 지향하고 있어 이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